

비주얼디자인으로서의 사진에 관한 연구  
-헤르베르트 마타의 포스터사진을 중심으로-

A Study on Photography as Visual Design  
-With Focus on Poster Photography of Herbert Matter-

서 영 상

---

여수대학교

이 논문은 2000년도 국립여수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서 영 상

Seo, Young-Sang

상명대학교, 일본구주산업대학원 영상예술과 졸업  
개인전4회 및 다수그룹전 참가  
현, 여수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전임강사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본론

1. 사진발명에 따른 그래픽발전의 역사적 과정
  - 1). 사진술의 출현
  - 2). 사진인쇄술의 발달
2. 비주얼디자인으로서의 사진
  - 1). 그래픽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사진
  - 2). 헤르베르트마타의 포스터사진
    - (1) 포스터
    - (2) 작품 분석

III. 결론

참고문헌

## 논문요약

1839년 프랑스의 다게르(Dagere)에 의해 발명된 사진술 (Photography)은 피사체 재현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표현매체로서의 사진탐구는 기존매체에 의한 인간의 시각과 관념을 변화시켰었다.

표현매체로서의 사진탐구는 1920년대 다다이스트들에 (dadaist)의해서 였다.

즉, 포토그램(Photogram)이나 시간(Time)과 공간(Space)을 2차원으로 구성하는 몽타주작품(Montage)들이 그래픽디자이너(graphic-designer)의 중요한 표현수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래픽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사진은 획기적인 변혁을 맞이 하였다.

특히, 대담한 화면 구성과 조형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진의 시각적 코드(code)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헤르베르트 마타(Herbert Matter)의 작품은 포스터 사진의 (photography poster)신경지를 펼쳤다고 할수 있다.

포스터속에 나타난 사진적 구성등은 오늘날 포스터제작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디자인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한 감각과 예술의 학문이고, 디자이너는 자기자신의 시각적 개념의 바탕위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창조행위를 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시대인 오늘날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이해가 요구 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래픽디자인과 사진과의 관계속에서는 사진과 그래픽디자인이 이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그래픽과 사진이 시각이미지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Photography invented in 1839 by Daguerre, a Frenchman, started from the conception of subject's reappearance and search for photography as an expression medium has changed the sight and ideas of a human. It is a photogram by dadaists in the 1920's that meets an epoch-making revolu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hotography as a new medium of graphic, but montage works which consist of time and space for two mentions became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on.

Especially, it can be called that Herbert Matter's works using visual codes of photography in which a bold composition of a picture and formative psychology are used carved out a new career of poster photography.

Design is the study of feeling and art to approach a human's mind and designers should create in using many various materials at the base of their own visual ideas.

Photography and a graphic design are not works interpreted dually in the relation between a graphic design and photography, but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 visual image.

## Keyword

Herbert Matter, Poster, Photography, Eye catch

## I. 서론

### 1. 연구배경

Arthur Rothstein은 현대적 시각전달 수단의 발전을 3단계로 분석하고 있다.

첫 단계는 외부의 세계를 정확하게 재현하며, 반복가능한 시각적이미지를 생산하는 1839년의 사진 발명과 두 번째 단계로는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 “사진으로부터”라는 부제로 손으로 그린 판화(engraving)로서, 1850년 최초로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진의 대량 재생 작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마지막 단계의 급진적인 발전은 1880년 Stephen Horgan에 의한 망판인쇄로서 문자와 사진의 결합을 신속하고 값싸게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보다 많은 대상에게 다량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대중정보전달사회에서는 그 특징적인 기능이라 할수있는 재현적, 기록적, 창조적, 즉시적 순간적인 이해가 가능한 사진과 같은 시각전달 매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글로벌 마케팅에 있어서는 문자나 언어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보다 유효한 시각이미지 전달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인간의 의지를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며, 특히 정적인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역동적인 이미지로서 인간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사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sup>1)</sup>

이렇듯 19세기 초반에 감정호소에 주안점을 두고 순수예술로서 출발한 사진은 비주얼디자인의 표현수단으로서 신문, 단행본, 잡지, 광고, 포스터를 비롯하여, 팹키지, 뉴미디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포스터는 매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사진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주얼디자인으로서의 사진적 표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안준천역. 사진예술개론. 신진각. 1990. pp.16

### 2. 연구내용 및 방법

1839년 프랑스의 다게르에 의해 발명된 사진술은 피사체 재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다다이스트 들에 의해 표현매체로서 탐구되어 기존매체에 의한 인간의 시각과 관념을 변화시켰었다.

복사나 재현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미지 표현도구로서의 탐구와 기술의 발달은 비주얼로서의 사진의 표현영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은 견인차와 같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역사적 발달 과정과 비주얼로서의 사진의 시각적 코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사진의 시각적 코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포스터 사진의 신경지를 펼친 근대포스터의 개척자라고 할수 있는 헤르베르트 마타의 작품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포스터사진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사진발명에 따른 그래픽발전의 역사적 과정

#### 1). 사진술의 출현

수세기 동안 인류는 현실의 이미지를 펜과 붓을 가지고 기록했다. 고대인들은 그들이 사냥하는 동물의 그림을 그렸고, 중국과 르네상스기 유럽에서는 화가의 기술은 모사가

아닌 극적이고 동적인 감각을 포착해낸다고 해서 “미술”이 되었다.

그러나 기계적 수단을 통해 직접 그자리에서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어 왔고, 마침내 과학의 발달로 인한 사진술의 발명은 인간시각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다. 기술로서의 사진술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로 성립된다.<sup>2)</sup>

- 1) 카메라 옵스큐라<sup>3)</sup>에 의해 피사체(혹은 대상)의 영상을 평면에 맺히게 하는 기술
- 2) 평면에 맺힌(일시적인) 영상을 화상으로서 영구히 정착시키는 기술

즉, 사진술은 대상물체의 상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물리적인 측면과 감광물질에 반영된 잠상을 현상, 정착시킨다는 화학적인 측면으로 형성되어진다.

물리학적측면의 원리는 카메라옵스큐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진의 화학적측면의 발명은 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영상을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에 정착시키려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사진술의 기본과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빛의 현상, 즉 영상(映像)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화상(畫像)으로 남길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7세기말 초산은에 침투시킨 소뿔이 빛에 의해 검게 변한다는 사실이 관측(1694)되었으나, 1727년에 독일의 연금술사인 슈츠(John Heinrich Schulze, 1687-1744)는 보다 구체적으로 초산은에 빛을 쬐면 검게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염화은으로 처리된 종이에 맺힌 화상은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 빛에 계속 노출되면 지워졌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화학적처리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남기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탄생의 결정적인 공헌을 말하자면 사진의 아버지로서 요셉 니세포르 니엡스(Joseph Nicéphore Niepce, 1765-1833), 루이 자끄 다게르(Louis Jacques

Mandé Daguerre, 1787-1851), 탈보트(William Fox Talbot, 1800-77) 세사람을 들고 있다.

1822년 니엡스는 아스팔트건판을 이용한 정착법을 고안했는데 이는 노출 시키기전에 금속판을 역청으로 코팅하면 햇빛으로 인화된 像을 영구히 고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건판을 카메라옵스큐라에 장진해서 촬영에 성공한 것이 1826년이었고, 그결과로 나온 사진이 현재 세계최초의 사진으로 인정되고 있는 헬리오그라피(Heliography) 즉, 태양으로 그린 그림<sup>4)</sup>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후, 다게르는 헬리오그라피보다 화상의 안전성이 우수하고 감광시간이 단축된 다게레오타입(Daguerre Type) 처리과정을 1839년에 프랑스학술원에 제출함으로써 사진술의 발명을 공식적으로 공인받았다.

탈보트는 초산은과 식염으로 감광제를 만어 종이에 바르고, 그 위에 나뭇잎을 놓고 감광시켜서 나뭇잎의 형태를 이미지로 남기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기법을 처음에는 포토제닉드로잉(Photogenic drawing)이라 명명 하다가 후에 탈보트타입이라 불렀다.

그는 사진술에 있어서 “현상”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다량 인화의 가능성을 개척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1879년 뉴욕, 로체스터의 조지 이스트만이 감광유제 코팅장치를 발명하여 사진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889년 연속적인 사진 음화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유제를 입힌 두르마기형태의 셀룰로이드 필름이 제작되면서 사진이 이미지 표현전달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2) 이원근, 영상기계와 예술, 현대미술사 1996, pp41

3) Camera Obscura: 어두운 방 암실이라는 뜻으로 햇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작은 구멍을 통해 어두운 방이나 상자속으로 들어와, 물체의 반전된 상을 반대편 벽위에 투영하는 장치이다.

4) 헬리오그라피: 유대의 역청이라 불리우는 감광성 아스팔트를 동판상에 도포하여 카메라 옵스큐라로 촬영하고 라벤더 기름에 세척한후, 그것을 요드의 증기를 씌어 명암의 차를 만들어서 산으로 부식시켜 예칭하는 방법으로 원화를 정확히 묘사하는 제판기술로써 그라비아 인쇄의 시초가 되었다.

## 2). 사진인쇄술의 발달

19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진술의 발명은 인쇄술의 발달로 영상의 기계적인 복제작업을 발전시켰으며 수공업 시대에서 기계시대로 나아가게 했다.

사진이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대량복제에 의한 시각전달 매체로서 새로운 사진성 확립에 이바지한 사람은 탈보트이다.

감광시킨 종이에 노출을 주어 잠상을 형성시킨 다음, 질산은계로 처리된 은옥화물(다게레오타입의 감광재료)을 이용해 종이를 현상하여 일종의 네가티브를 만들고, 다른 감광종이와 밀착시켜 노광하면 포지티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칼로타입(Calo Type)기법으로 사진을 대량으로 인쇄할수 있는 복제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게레오타입의 디테일함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지적되자 영국의 조각가였던 프레드릭 스코트 아처(Frederick Scott Archer)에 의해 칼로타입에서 쓰였던 종이대신에 유리를 사용하고, 유리판에 은염류를 접착시킬 수 있는 계란 흰자위인 알부민(albumin)을 사용하여 상을 선명히 하는 콜로디온 습판법을 1851년에 개발하였다.

그런데 콜로디온은 건조해지기전 축축한 상태에서 노출과 현상과정을 끝내야만 하므로 사진을 찍으려면 완전한 암실의 형태가 바로 옆에 밀착되어 있어야 했다.

알부민은 빛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노출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건축사진과 같이 고정된 상 앞에서 긴 노출시간을 주어 완성되는 사진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로디온 습판은 다게레오타입에서 이룰 수 없었던 복제 가능성과, 칼로타입에서 이룰 수 없었던 정밀함 이 두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동안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목판인쇄로 인하여 처음으로 그래픽이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중세에는 목판인쇄에 이어 점차로 동판 조각술, 부식 동판화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을 이용하여 포스터발달의 원동력이라 할수 있는 석판인쇄술이 발명되었다.

1871년 뉴욕의 존 캘빈 모스(John Calvin Moss)는 예술 작품을 금속인쇄판으로 옮기기에 알맞은 사진제판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사진제판은 인쇄판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진을 절감시켰으며 원작품을 훨씬 더 생생하게 재현해 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은 활판과 동시에 인쇄될수 없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발행에 유용하게 채택되지 못했다.

1880년 뉴욕데일리그래픽지에 중간톤(Half Tone)으로 거의 완벽하게 톤을 살린 사진을 처음으로 재현해내고 오늘날과 같은 사진제판으로 계조의 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1888년 미국의 루이스와 레비가 강점스크린을 완성함으로써 비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3년에는 에칭이 된 유리스크린을 사용하여 일률적인 그물눈을 상업화하여 사진영상의 재현 시대가 막을 올렸다.

비약적인 인쇄기술의 발달과 카메라와 감광재료의 진보에 힘입어 19세기에는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사진이 일반대중의 구석구석에 까지 대량으로 침투해 갔다.

사진은 인쇄술과 연관되어 다양화되고 그 이용범위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사진과 그래픽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 2. 비주얼디자인으로서의 사진

### 1). 그래픽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사진

사진에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1843년 스코틀랜드의 화가 데이비드 옥타비우스힐(David Octavius

Hill, 1802-1870)의 스코틀랜드의 독립교회를 세운 474명의 목사들을 영상으로 기록한데서 시작한다.

뉴헤이븐의 한 목사가 교구민들의 실직위험을 줄이기위해 어선(漁船)디자인을 개선하려는 캠페인을 벌였을때, 이 사건에 관련된 기록사진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대중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위한 시각전달매체로서 사진이 이용된 최초의 사례이다.<sup>5)</sup>

탈보트는 포토제닉드로잉(Photogenic drawing) 기법으로 자연속에서 그래픽 형태를 추구하여 조형적 미를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니엡스에 의해 감광판을 부식시켜 만든 판화의 복제판과 사진감광판인쇄가 발명되자, 사진이 인쇄에 의해 대량복제되기 시작하고, 비로서 사진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그래픽 디자인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래픽디자인에 사진이 참여하여 획기적인 변혁을 맞은 것은 1920년대 다다이스트들에 의해서 였다.

광학기술의 늦은 발달로 사진의 표현력이 떨어지던 시대에 포토그램기법이나 시간과 공간을 2차원으로 구성하는 몽타주 기법들은 다다이즘화가들에 의한 자유분방한 표현의 시도로 그래픽디자인의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만레이는 1920년경 기존의 사진기법과는 전혀 다른 포토그램<sup>6)</sup>과 솔라리제이션<sup>7)</sup>을 이용해서 상징적이며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모홀로나기는 카메라를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재래의 구성개념들을 무시하고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주로 빛을 이용한 작품제작을 시도하였다.

새로운 재료, 사진몽타주나 포토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법, 그리고 동적인 움직임, 빛, 투명성등을 포함한 시각적 수단, 사진의 확대, 왜곡 이중노출과 카메라아이에 의한 즉물적 묘사는 그래픽디자인의 비주얼적 요소로서 활발히 표현되었다.

모홀로나기와 만레이는 사진표현기법에 의한 그래픽디자인에 새로운 영향을 준 사람으로 사진과 디자인의 접목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그래픽작업에 사진기법을 통합시켰으며, 특히 공간구성에 있어서 현대적 개념의 부여방법으로서 사진기법을 활용했다.

1920년대는 물필름의 등장과 사진기재의 발달로 화상제작기술과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시각전달에 큰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렌즈의 발달로 표현가능하게 된 클로즈업앵글과, 몽타주의 새로운 조형기법과 이론의 확립, 또 옵셋인쇄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사람들의 시야를 폭넓게 만들었다.

인쇄제판에 사진의 원리를 응용한 사진제판수법은 인쇄의 대량복제화와 대중의 정보수단으로서 신문 잡지 카달로그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1930년대 Herbert Matter의 포스터는 사진의 몽타주수법에 의한 대담한 화면구성을 통해 사진의 조형심리등을 잘 보여준 작품으로 비주얼디자인으로서의 사진과 디자인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5)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디자인, 시공사, 2000, pp65

6) 렌즈없이 사진을 제작하는 기술이며 대상물은 감광지위에 놓여지고 노출은 성냥불이나 조그만 전지의 빛, 일반적인 조명에 의해 조작된다.

7) 솔라리제이션: 필름이 적정노출의 1000배이상 심하게 노출과다되었을 때 발생하는 톤의 반전현상

## 2). 헤르베르트 마타의 포스터에 관하여

### (1) 포스터

사진에 시각언어로서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은 정치선전에 의한 것이었고, 인간의 욕망을 접근시키고 잠재적인 사람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레트릭을 필요로 한것은 산업광고였다.<sup>8)</sup>

비주얼디자인으로서 사진과 디자인의 접목이 처음으로 이

루어진 광고매체는 포스터이다.  
 포스터는 전달할 내용을 일정한 지면에 한눈에 알수 있도록 표현하는 선전이나 광고매체이다.  
 즉, 이벤트나 흥미있는 것에 대해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주제를 이미지와 연결시켜 문구와 함께 만드는 그래픽을 말한다.  
 1890년대부터 형식적으로 그 본체를 갖춘 포스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일련의 사조와 사건들에 의해 변모되고 발전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많은 매수를 전시할 수 있고 사진표현에 의한 어필효과가 크다는 포스터의 특성은 복제예술로서의 사진과 상호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수 있다.  
 또한 평면 형식을 갖는 게시용 선전매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광고메세지의 전달에 있어 시각적전달 효과를 높여야 하며, 보는 사람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시각전달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를 기점으로 하여 포스터의 역사를 살펴볼 때, 궁극적인 원점은 벽보라는 게시매체에서 발견된다.  
 벽보의 흔적은 1897년 로마의 노예제도가 있었던 헤르클라네움(Herklaneum)이라는 도시에서에서 몇가지 증거물을 찾을수가 있으며, 파피루스(Papyrus)에 씌어진 벽보가 아직도 겹겹이 붙어있다 한다.  
 18세기말 석판화 기술의 발달은 벽보형태에서 포스터형식으로 전환되었는데, 화가들에게 이러한 포스터의 출현은 지금까지 화랑에서 잠자고 있던 회화를 “대중을 위한 예술”로서 거리로 해방시켰다.  
 15세기에 발명된 활판인쇄기술에 의한 문자위주의 포스터는 교회나 국왕의 알림판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나, 그림위주의 대형포스터가 대량으로 인쇄된 작품이 거리에 나온 것은 석판화의 발명과 다색인쇄기술이 발전된 19세기 후반 아르누보(Art Nouveau)시대이다.  
 1900 년을 전후하여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새로운 미술양식은 유기적인 곡선의 미학으로 처리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시대에 일어난 미술사조로 세제순(Secession)운동이 있는데 “분리”라는 뜻이다.  
 아르누보와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극도로 단순화한 리드미컬한 구성속에 추상적 기하학적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인공적인 직선의 미학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급속한 자동차의 보급기였던 그 시대의 정서가 반영된것이다.  
 즉, 거리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자동차안에서 포스터를 한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형태의 단순화, 색채의 명료화로 화면전체가 하나의 기호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었다.  
 카산드르(A.M. cassandre) “Nord Express(1943)”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합리적인 조형 양식을 확립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강조된 원근법은 현대의 작품속에도 “속도”에 대한 강렬한 시각화로 모방되고 있으며, 그의 제자인 헤르베르트 마타는 카산드르양식에 영향을 입고 사진을 이용한 몽타주기법으로 원근감과 속도감의 시각화를 작품속에 표현했다.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아이캐처조건이 있다.

- \*사진의 앵글
- \*크기의 대비
- \*명암과 색의 대비
- \*효과적인 조명
- \*트리밍
- \*특수기법 (몽타주사진 등)
- \*공간과 비율
- \*시선의 흐름과 방향성
- \*균형



헤르베르트 마타는 사진의 아이캐칭(Eye catching)효과를 이용하여 단순한 도형적 재미를 뛰어넘어 내용에 대한 관심까지 유발시키는 포스타 사진표현에 신경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8) 이병용, 20세기사진사, 현대미술사, 1994, pp.66

## (2) 작품 분석

스위스의 디자이너이자 사진가인 헤르베르트마타(Herbert Matter, 1907)는 “사진을 도입한 포스터 표현”으로 비주얼디자인으로서 이용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스위스국립관광청”을 위한 포스터들을 디자인 하였는데 폴라리나 몽타주와 같은 현대 운동의 시각적 구성과 기법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진과 그래픽디자인에 적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했다.

사진1은 1935년에 스위스 스키휴양지를 위해 제작된 관광 포스터로 작은 이미지에 대한 큰 이미지와의 관계 즉, 형태의 대비로 박진감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선의 흐름과 방향성은 시선의 이탈을 막아주고 있다.

조그만 사람과의 대비로 인해 스키를 타는 사람의 얼굴은 더욱 크게 클로즈업 되고, 화면 밖으로 향한 시선의 흐름은 그대로 흘러버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글에 비친 설산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메인 비주얼의 클로즈업에 의한 대표적인 표현작품으로 작품에 역동적인 힘을 주고 있다.

사실적 묘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진의 표현력에 의해서만이 얻을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된다.

왼쪽에 위치한 작은 사진은 정적인 사진에 움직임의 요소를 더해주고 있으며 공간내부의 각도와 형태의 변화는 깊이와 크기의 착시를 일으킨다.

사진2는 기본적으로 사선의 구도로서 아래로 쏠리는 느낌을 줄수 있으나 사선형 구도의 여성 포즈레이트의 시선이 수평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화면이 균형과 속도감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균형은 대칭이나 비대칭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칭적인 양식에서 균형잡힌 상태를 표현하기란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비대칭 디자인은 여러 가지 가변성 있는 선택의 여지와 중심을 벗어나는 데서 나타나는 불안정감 등이 있어 화면처리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작품은 조형적 구성물이 아닌 사진의 조형심리를 이용한 인물의 수평적 시선처리로 균형을 이룬 작품이다.

사진3은 비행기와 산의 수평적 관계, 산과 스키어들의 관계, 스키어들과 타이틀과의 삼중구조가 계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포토몽타주 작품이다.

고정된 시야가 아닌 다수의 초점을 가진 단편집약적인 원근법의 사용을 몽타주라는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진4는 우측으로 향한 두 개의 케이블카와 좌측으로 향한 두사람의 시선, 하늘로 향한 두 개의 산과 넓은 창공은 공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우앵글과 명암대비로 인한 원근감표현과, 스케일을 강조하는 사진배치는 공간성이 강조된 정적인 화면에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사진5는 시선이 좌측상단으로 향하고 있으나 배경에 작은 스키어들의 안쪽을 향한 구도는 보는이들의 시선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한지면에 2컷이상의 사진을 넣을 경우 테마를 보다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 혹은 시각적 호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사진의 대소이 차를 이용하는데 이작품에서도 문자의 대소, 이미지의 대소, 색의 선택 등으로 입체감과 리듬감이 표현된 작품이다.

사진6은 스위스산과의 합성사진으로 원근감을 강조하고

흑백사진의 명암대비를 이용한 입체감 표현으로 산봉우리에 대한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내적인 공간의 역동성이 표현된 작품이다.

사진7은 사진의 언어적 지시적기능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다중노출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 조사진으로 꾸며짐에 따라 전체가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개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스텝의 반복적 구도는 화면에 긴장감과 의식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사진8은 사각의 창문에서 옆보고 있는 여자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가 디자인한 KLM의 문자가 눈에 닿는다.

서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왼쪽 상단으로 향하고 있는 투영된 작은 비행기사진은 상황인식을 하는데 작은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진9는 안구-시선-대상물로 시각적 흐름을 유도한 전형적인 포스터의 제작법이다.

주타켓은 원과 로고로 약한 선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하단으로 향한 시선처리와 명암대비로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사진10은 몽타주의 색이 강한 사진으로 로우앵글로 촬영된 사진을 리드미컬한 강약의 배치로 오려붙이는 기법을 통하여 방향성과 동적 이미지 표현이 강조된 작품이다.

헤르베르트 마타는 특히 스케일의 극단적인 대조, 흑백사진과 색채의 조화, 사진의 동감과 시점, 과감한 프리밍을 통한 표현으로 근대포스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퍼스펙티브한 표현을 위해 메인 비주얼을 클로즈업시켜 화면전면에 배치하고, 몽타주기법에 의한 배경처리는 평면에 입체감과 원근감을 주었다.

선(線)원근법에 의한 정적인 시선보다는 의도적으로 방향성을 이끌기 위한 다각적원근법에 의한 동적시선처리로 자연스럽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작업임을 살펴볼수 있다.

또한 사진의 본질인 지시적 언어적기능을 포토몽타주나 다중노출에 의한 멀티플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킨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1930년대 그의 포스터들에는 몽타주, 동적인 스케일 변화, 타이포그래피와 사진과의 효과적인 결합등으로 사진과 영상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떠난 새로운 관계속에서 구성된 회화적 상징물(Pictorial symbol)이 되었다.<sup>9)</sup>

9) 월간디자인, 그래픽디자인의역사, 1986, pp.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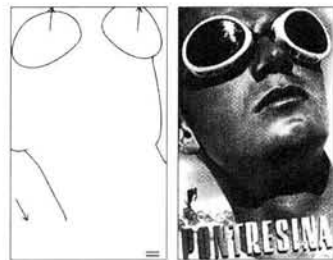


사진1, 19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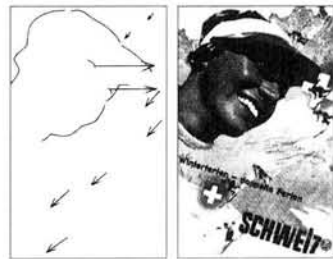


사진2,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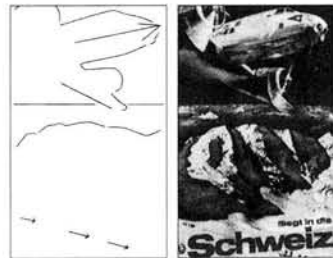


사진3, 19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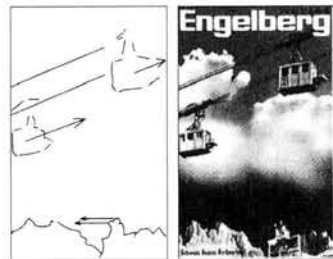


사진4, 19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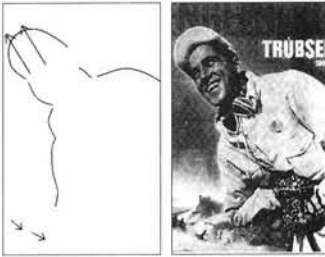


사진5. 19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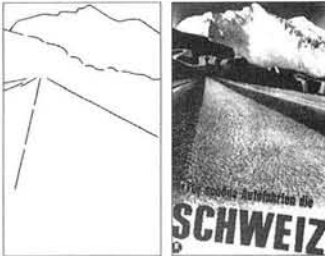


사진6. 1935년



사진7. 19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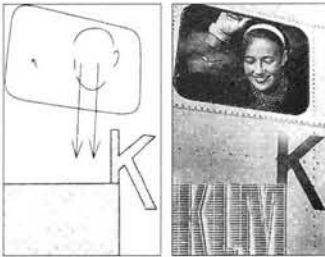


사진8.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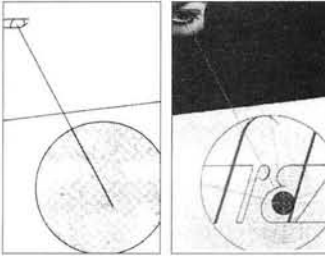


사진9.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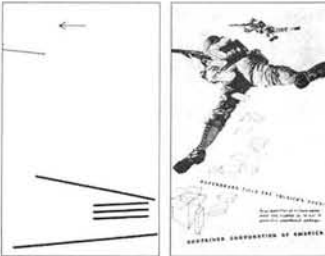


사진10. 1943년

### III. 결론

영상시대에 있어서 인쇄매체광고의 대부분은 사진이미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진은 시각언어로서 문자로 쓰인 말이 아니라 조형으로 표현된 정보이다.

시각언어로서 사진이 비주얼디자인에 필요로 하는 이유를 언어와 관련지어볼 때

- 언어의 개념성에 대한 실체적 제시
- 서로 다른 언어체계를 초월하는 즉물적(即物的)제시<sup>10)</sup>

즉, 관념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정리하기 힘든것도 실물을 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지의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관념적인 표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포스터에 사용되는 실체적 이미지는 쉽게 호소력을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사진의 이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외계의 사상이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새겨진 있는 그대로의 외시적(外示的)이미지 뿐만 아니라, 사진가의 명확한 이미지이기도 한 공시적(共示的)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숨겨진 코드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1920년대후반 이후 사진을 언어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고 “미디어로서의 사진” 표현을 시도한 헤르베르트마타의 포스터는 시선의 흐름을 유도한 사진의 동적이미지 표현, 몽타주기법을 이용한 다각적시점을 통한 착시적표현, 절제된 프레임을 통한 입체감표현, 다중노출에 의한 멀티플이미지를 이용한 언어적표현으로 근대포스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수 있겠다. 1950년대 보그(Vogue) 등의 사진잡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진가(어빙팬, 리차드아베돈등)들의 시각감성은 그때까지의 디자인 구성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사진촬영기기의 진보와 인쇄제판과정의 기술발달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소형카메라의 기동력으로 인한 스냅 촬영과, 대담한 역광촬영, 공중촬영, 줌렌즈효과, 필름의 자동감김장치 등은 포스터를 비롯한 인쇄광고물에 있어서 새로운 표현법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진을 이용한 인쇄물이 나타난 것은 1909년 “유람선광고”였고 1950년대는 본격적으로 넓은의미에서의 상업사진이 자리잡히게 되었다.

1980년대 컬러광고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광고표현이 다양해지고 1990년대는 컴퓨터그래픽스의 등장으로 광고 표현수법이 점점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현대 포스터에 나타난 사진경향을 보면

1. 배치적 표현(Arrangement): 언뜻보면 사진만을 사용한 스트레이트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눈에 띄지않는 작은 요소에 컴퓨터에 의한 이미지 합성작업등이 배치되어 있어 강조된 사진 이미지는 보다 호소력있게 전달된다.
2. 함축적 표현(Intensive): 다양한 피사체선택과 다채로운 표현을 자제하고 함축적이고 단순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에 중점을 둔다.
3. 강렬한 표정표현(Facial Expression): 강한 얼굴표정 사진이 메인 비주얼로 이용되는 경우로 감정의 전달을 보다 리얼하게 전해준다. 표정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전체를 심플한 톤으로 표현하고 표정자체가 예술적 승화를 가져올수 있어야 한다.
4. 환상적 표현(Dazzle): 연촉점촬영이나 필터처리 등으로 사진전체를 아웃포커스 시킴으로서 신비감과 환상적표현을 추구하며, 비주얼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명한 타이포그래피로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5. 연출적 표현(Stage): 모형을 만들거나 현장에 콜라주적

인 피사체 배치를 통한 연출사진으로, 비주얼이미지를 실제물로 만들어 사진촬영을 해서 작품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이다. 표현 불가능한 현장감이나 공간성을 표현할수 있다.

6. 전위적 표현(Avant-Garde): 일반적인 미의 추구와는 역행적인 수법으로 아름다운 것을 한층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찢거나 조각내거나 하는 표현으로 리얼리티를 강조하고자 한다.
7. 파괴적 표현(Rip): 완성된 사진을 찢거나, 붓터치 등으로 메인 비주얼을 흠집내거나 파손 된듯한 표현방법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8. 역동적 표현(Dynamism): 스피드감이나 긴장감이 살아있으면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주로 사진의 계산된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9. 현실적 표현(Realism): 있는 그대로를 촬영하는 사진의 본질에 기초한 표현으로 비주얼효과와 포인트를 현실→사실이라는 흐름의 신뢰적 표현을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전달을 한다.
10. 클로즈업 표현(Close-Ups): 사진만이 묘사할수 있는 표현기법으로 부분 확장된 사진과 함께 시선을 화면밖으로까지 확장시키는 효과가 연출된다.

현대 포스터의 표현흐름들을 살펴보면 사진술과 컴퓨터 이미지 프로그램등의 발달로 불가능했던 표현의 가능성들이 확장됨으로써 아트포스터(Art poster)로 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사진은 육안으로 파악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사진(寫眞)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포토그래피를(Photo+graphy)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원어적 의미로 해석한 다양한 표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또한, 물리적 재현상을 수단으로 하면서 대중의 기호와 욕

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예술성을 염두에 두고, 비주얼의 표현에 있어서는 사실적 사진위주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표현기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0) 정성근. 광고기획과 사진. 1994. pp.105

## 참고문헌

- 1). 존 버거. 이미지. 동문선
- 2). 코닥 사진대백과사전
- 3). 디자인용어사전. 미진사. 1981
- 4). 디자인출판부.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1985
- 5). 양호일역. 그래픽디자인론. 미진사. 1983
- 6). 루돌프아른하임 김춘일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 7). 이주향. 사진이 그래픽디자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85
- 8). 안호림. 비주얼커뮤니케이션으로서 사진에 대한 고찰. 홍익대. 1987
- 9). 디자인의 현장. 1995. 6월호
- 10). 이병용역. 20세기 사진사. 현대미학사. 1994
- 11). 정성근. 광고기획과 광고사진. 미진사. 1994
- 12). 박주석. 포토몽타즈. 해돋이. 1989
- 13). The 20th-Century Poster. Design of the Avant-Garde by Dawn Ades Abbeville Press.
- 14). 인쇄학회출판부. 사진을 살리는 레이아웃. 2000
- 15). JICC 출판국. 디자인 읽는법. 1993
- 16). 이원근. 영상예술. 조형미디어. 2000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